

위대한 유산

아버지는 지천명이 넘어 쌀농사를 시작한 늦깎이 농부이다. 2002년 여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본연의 사업을 정리하시고 그달 고향으로 귀농하신 것이었다. 물론 아버지의 선택에는 많은 고민이 따랐다.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할아버지 슬하의 8남매 중 장남으로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 때문에 모든 순위에서 밀려났던 7남매들에 대한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계셔서 할아버지에 이어 고향을 지키기로 하신 것이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아버지와 나의 고향이기도 했다. 우리 고향은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었고, 예전부터 기후와 토양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쌀농사에 적합하여 곡창 지대로 명성이 높았다. 생쌀에서도 구수한 향이 나서 밥맛 또한 좋았고, 그만큼 쌀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기로도 유명했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에서도 아버지에게 쌀농사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년 일손이 부족할 때 간간이 논일을 거드시며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 외 쌀농사의 지식은 전무한 상황으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벼의 상태에 적절히 대응하지는 못하셨다. 그럼에도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잘 극복하셨지만,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은 늘어 가는 주름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논에 정성을 다하셨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그 정성을 말해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쌀은 항상 변함없는 맛에 질리지도 않는 것이 주식인 밥을 만들 수 있고, 떡과 술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어 더욱 쌀농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해 여름 태풍 루사를 몰고 와서 논의 일부를 유실시켰다. 그나마 유실이 적었던 논에는 벼의 도복으로 초보 농부의 마음까지 할궤어 버렸다. 나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부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다. 논으로 흘러든 흙들을 퍼내고, 무너진 논둑을 다시 세우며 쓰러진 벼단을 곳곳이 묶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 모습에 아버지는 기특해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다시 세우고 다져 놓은 논둑에 걸터앉아 참을 먹으며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쭙어 보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할아버지는 70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의 말에는 내일의 걱정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냉수로 입을 헹구시고 질퍽이는 논으로 다시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다.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아버지의 허름한 티셔츠는 그동안 잘 다려진 셔츠에 넥타이를 매던 모습보다 멋지게 보였고, 시큼한 땀 냄새는 즐겨 뿌리시던 향수보다도 더욱 향기롭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버지를 위해 땀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음 날에도 동이 트기 전에 논으로 나가셨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잘 쉬었니? 벼는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란다고 하더구나.”

묵직한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땀을 식히실 때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수년을 끊으셨던 담배를 피우시며 그윽하게 논을 바라보셨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되던 사업을 그만두고 아직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논의 쓰러진 벼를 보시면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다음 날 짧았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고, 매일 아버지께 안부를 전하며 가을걷이에 맞춰 휴가를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렸다.

이후로 아버지는 부족한 일손을 동네 어르신들과 품앗이를 하며 메우셨다. 이른 가을 할아버지의 49재를 지내고 나니 밤낮의 기온차로 눈에는 밤이슬과 아침 안개가 생겼고, 살아남은 벼들은 아버지의 정성을 아는지 씨앗이 굵어지며 잘 여물고 있었다. 10월이 되면서 이미 지방에서는 첫 벼 수확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상강이 오기 전에 벼를 수확하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 시기에 맞추어 휴가를 내고 일손을 도우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생각했던 것보다 벼들이 잘 자랐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께서 시작을 너무 잘해 놓으셔서 잘 자란 것 같구나”

일부 농가는 추수 후에 남은 벼짚을 축산 농가에 팔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벼짚을 팔지 않으시고 퇴비를 만들어 땅이 얼기 전에 밑거름을 치고 갈이를 해 놓으셔서 땅심을 높이셨다고 한다. 그래서 벼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 태풍에도 잘 견뎌 준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보통 1마지기 논에서 쌀 4가마니가 나와야 풍년이라는데, 할아버지의 논에서는 2가마니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성이 부족했다며 할아버지께 면목이 없다고 하셨지만, 10가마니가 나와도 손색이 없었던 아버지의 정성을 분명 할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며칠간의 추수를 마치고 아버지는 그동안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동네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다. 한분 한분께 막걸리를 올리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어르신들 덕분에 부친께서 시작하신 농사를 무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네 부친 고집은 말도 못해! 매년 조합에 계약한 양을 못 채우셨어.”

한 어르신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을 보태셨다.

“고집이 밥 먹여 주나? 농부들도 시대를 따라가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조합에서는 지역 농민들과 그해 쌀의 수확량을 판단하고 계약한 뒤, 추수 후 생산된 쌀을 통합으로 거두고 도정하여 고향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약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매년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아버지께 할아버지처럼 괜한 고집으로 손해 보지 말고 이익이 남는 쌀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특히 이번과 같이 태풍으로 동네의 평균 수확량이 적을 때는 더욱 함께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셨다. 일부 농민들과 도정 공장이 조합과 계약한 양을 채우기 위해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값싸게 사들인 뒤, 고향에서 생산된 쌀과 7:3의 비율로 섞어 조합에 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조합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농가와 도정 공장이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긴 시간의 설득에도 정중히 사양하셨다. 어르신들은 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를 이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 힘든 농사를 지으려 하나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취기 오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나는 올해 수확량도 좋지 않았고, 앞으로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뵈어야 하는 분들이라 동의를 안 하시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자개함을 내게 건네시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고 담배를 피우시려는지 밖으로 나가셨다. 자개함 안에는 고이 접은 몇 해 지난 달력들의 낱장들이 있었다. 그 낱장 뒤편에는 장문의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쌀은 항상 변함없는 맛에 질리지도 않는 것이 주식인 밥을 만들 수 있고, 떡과 술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더욱 쌀농사를 잘하고 싶다. 조상님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직접 손매기를 하시며 잡초를 뽑으셨고, 일렁이는 푸른 벼들을 보며 풍년을 기원하셨다. 아이 하나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한 동네가 정성을 쏟아야 하듯이 쌀농사도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고 키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쌀농사도 그저 정성만 쏟고 지켜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만

큼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잘 자란다. 그래서 농사에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밥을 매일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삐뚤삐뚤 적혀 내려간 글에는 할아버지의 70년 쌀농사의 소신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왜 쌀농사를 잘 짓고 싶으셨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가을걷이가 끝나고 겨울을 준비할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소식을 매스컴으로 접하게 되었다. 몇몇 지방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쌀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농민과 판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우리 고향 역시도 경찰 수사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결국 수년간 혼합미를 고향의 쌀로 둔갑시켜 조합에 공급한 고향의 농민들이 적발되었고, 그 부당 수익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 사건은 고향 쌀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한 그 메모가 귀농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유혹과 인고의 시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갖게 됐던 이유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이익을 좇으려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을 이미 우려하셨고, 주변의 유혹을 선한 고집으로 이겨 내셨던 것 같다.

또한 우리들에게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의 풍년을 더욱 바라고 계셨던 것 같다.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푸르게 일렁이는 벼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매년 풍년이 오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날 이후로 선한 고집의 소유자가 최후에 웃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정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잘 지켜서 마음에 굴곡이 없는 청렴한 군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